

모유수유 권장 “2011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임명”

WHO-UNICEF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보건과 위생 상태가 취약한 지역의 수백만 어린이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나 인공수유로 인한 영양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인공수유가 야기시키는 사망과 질병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젖병 수유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리고, 고통 받는 아기들이 많다. 선진국의 아기들은 모유를 먹고 자람으로써 설사, 호흡기 감염, 중이염, 피부 알레르기 등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입원을 하거나 소아과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 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체적 혹은 의학적인 이유로 젖을 먹일 수 없는 엄마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젖을 먹이겠다는 결심을 하더라도 엄마의 의지는 가족이나 친구, 미디어, 병원의 의료진들로 인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병원은 출산 전후에 모유수유에 대해 결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UNICEF와 WHO가 주창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Baby - Friendly Hospital Initiative)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병/의원과 조산원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운동의 취지는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가르쳐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병원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모유수유를 증진하는 것이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은 병원들이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실행하도록 권장해 모유수유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지원한다.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 (UNICEF / WHO 지정)

1. 병원은 의료요원을 위한 모유수유 정책을 문서화 한다.
2.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요원에게 모유수유 기술을 훈련시킨다.
3. 엄마젖의 장점과 젖먹이는 방법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4. 출생 후 30분 이내에 엄마젖을 빨리기 시작한다.
5. 임산부에게 엄마젖 먹이는 방법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 젖 분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친다.
6. 갓난아기에게 엄마젖 이외의 다른 음식을 주지 않는다.
7. 엄마와 아기는 하루 24시간 같은 방을 쓴다.
8. 엄마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
9. 아기에게 인공 젖꼭지나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다.
10.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퇴원 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한국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이 국내 첫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임명된 이래 매년 2~7개씩의 새로운 병원이 임명되어 2010년 12월 현재 전국 40개 병원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 Friendly Hospital) 명단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엄마젖먹이기 홈페이지 www.unicef.or.kr/에서 확인 가능함.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임명 과정

- 1) 매년 9월 중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병원에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임명 관련 공문과 안내자료를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과 조산원에 발송한다.
⇒ 자가평가지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www.unicef.or.kr)→엄마젖먹이기→소식 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2) 산부인과, 병/의원과 조산원은 자가평가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보통 1달 뒤)까지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한다.
- 3) 회수된 자가평가를 분석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할 후보병원을 선정한다.
- 4) 현장 평가위원들이 후보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인, 산모, 직원 등과의 면담,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의 실행 정도 평가 등을 통해 자가평가의 내용을 확인한다.
- 5) 심사회의를 거쳐 그 해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을 결정하고 10월 중 임명식을 개최하고 임명패를 수여한다. (임명 후 3 - 5년마다 재평가 실시)

임명 병원에 대한 지원

- 1) 모유수유 책자 무료 제공
- 2)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의료요원 교육 참가비 50% 할인
- 3) 육아잡지 등을 통해 홍보

(110-03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모유수유 권장사업 담당자

전화 : 02-723-7409

팩스 : 02-722-6480

이메일 : bfhi@unicef.or.kr

홈페이지: www.unicef.or.kr